

어항 · 어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정체성 확보해야

이성우 |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았다. 창립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모습을 떠올리면 어느새 22살의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협회의 모습이 한편으론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협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룩한 수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미래는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여전히 '불투명'의 현재진행형이다. 어항에 대한 개념조차 생경하던 시절의 고난을 딛고 이제 성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다짐하지만 주변 여건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때로는 정치논리로, 때로는 경제논리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떠밀리는 듯한 인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오늘날 일본이 왜 수산대국이란 칭호를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적어도 일본은 구차한 정치나 경제논리로 어촌·어항·어장의 가장 주체가 되어야 할 어업인들을 정책적으로 헛갈리게 하는 일이 결코 없으며, 오히려 50년, 혹은 1백년 뒤를 생각하며 이들의 삶의 터전인 어촌과 어항, 그리고 어장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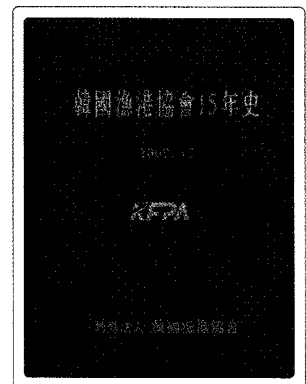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빚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자원고갈현상은 필경 바다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어쩌면 이에 관한 선구자적 사명을 자임해 온 협회가 서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앞으로 닥칠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는 단순히 '협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산업의 발전과 우리 바다의 주인이자 주체세력인 어업인의 관점에서 앞으로 '협회가 과연 어떤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협회 창립 때부터 우연찮게 인연을 맺게 되어 지난 20여 년 간 협회의 희로애락을 함께 지켜봐 온 한 사람으로써 한국어촌어항협회 창립 22주년을 맞아 나름대로 협회의 과거를 정리해보고, 현재를 진단해보며,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고민해 보았다.

○○○ 1. 과거 - 긴 잠에서 깨어나다

“벽걸이 어항을 수출하고 싶습니다. 협회에서 상담을 해줄까요?”

‘한국어항협회 15년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어항협회’라고 하니까 집에서 물고기 기르는 어항과 관련한 단체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다. 물론 다분히 웃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를 뒤



〈한국어촌어항협회 창립 22주년에 즈음하여〉

집어 생각한다면 창립 후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항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 짝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 이전엔 국민들의 어항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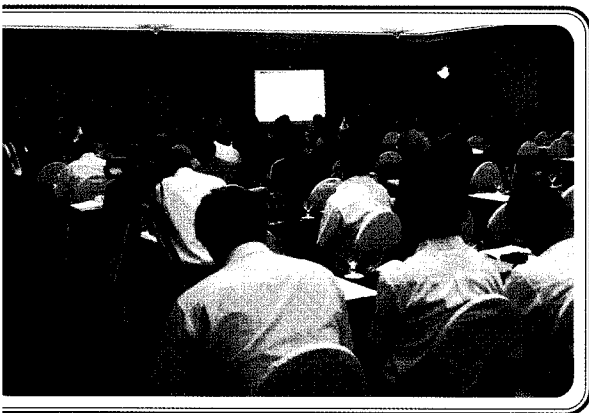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어항에 관한 기본법인 어항법이 제정된 것은 1969년이다. 그나마 협회가 창립된 1987년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세계의 수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신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이는 거의 방치, 아니 방기(放棄) 수준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경우를 다시 예로 든다면 일본은 어항개발에 관한 기본법인 어항법을 1950년에 제정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10여 차례에 걸친 어항정비장기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2001년엔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항어장정비법을 다시 개정하기도 했다.

수산관련예산에서 어항관련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어항에 관해 그들이 쏟고 있는 노력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은 전체 수산관련예산에서 어항관련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0% 이상이다. 반면 우리는 평균 35% 안팎에 불과하다.

어쨌거나 이렇게 열악한 어항환경과 어항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수준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1987년 한국어항협회의 창립이다. 일본의 전국어항협회가 창립된 것이 1948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어떤 의미로 앞서 말한 어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낮은 이해수준을 결코 탓할 만한 일도 아닐 것 같다. 하지만 협회 창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어항산업은 가히 혁명적인 전기를 이룩할 수 있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늦긴 했지만 한국어항협회를 창립하고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한 최고의 공로자는 누가 뭐래도 손정식 전 회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적박한 동토에 한 알의 밀알을 심는 심정으로 협회를 만들고 또 이끌어 온 그의 공로는 후대의 역사가 적절한 평가를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

어항에 대한 재인식 · 국제교류 · 어항관련 문헌 정비



협회 창립으로 인한 어항산업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어촌·어항·어장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고, 둘째, 국제교류를 통한 어항산업 관련자의 세계화 의식 제고이며, 셋째, 어촌·어항 관련 각종 문헌의 정비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협회의 사업규모나 조직이 비약적인 성장·발전을 이룩했다는 협회의 내부적인 성과와는 조금 다른 관점일 수도 있겠다.

우선 어촌·어항·어장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협회 창립 당시 전국 어항 수는 소규모 항을 포함해서 약 2천개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절엔 어항과 항만을 구별 못하는 관련 인사들이 부지기수였다. 특히 정치권에서 많았다. 그래서 한국어항협회를 창립한다고 하자 무슨 국고 보조나 받으려는 또 하나의 관변단체 등장쯤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농후했다. 그 이면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은 곧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그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이 협회 창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어업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업인들 상당수가 패배주의에 휩싸여 하루 빨리 어촌을 떠나는 것이 곧 살길이라는 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항간거리가 일본의 3배나 되는 33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악천후 등으로 긴급사태라도 발생하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줄만 알았지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사실 항간거리에 대한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들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물며 자신들의 생활터전인 어촌과 어장이 어항의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더더욱 무리였을 것이다.

바로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출범한 협회는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어항과 항만의 차이점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으며, 어업인 역시 어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어항이 어선의 정박항 정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수산물 생산의 보급 및 유통기지, 나아가 해양관광레저를 통한 국민휴양지로의 발전 가능성 제시는 어업인 비어업인 가릴 것 없이 분명 '바다의 재발견'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협회의 숨은 공로가 절대적이었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어항산업 관련자의 세계화 의식 제고는 협회가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으로 이룩한 탁월한 성과라고 간주하고 싶다.

아마도 최근 10여 년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국제화, 세계화의 변화를 맞게 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과히 많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단지 몇몇 미래학자들이 '민거나 말거나' 식으로 발표한 학술적·학문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경향이 과거 10여 년 전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심지어 '빛의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결론론이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회가 이룩한 국제교류를 통한 어항산업 관련자의 세계화 의식 제고는 우리나라 어항산업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일본전국어항대회 참관을 통해 40년 가까이 뒤진 일본의 어항산업을 벤치마킹 할 수 있었으며, 양국을 상호 방문하는 '한·일어항기술교류회'를 정례화 한 것도 어항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아무래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어촌어항조사단 파견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합법적인 해외관광'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어항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국제적 안목과 감각



을 가르쳐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란 서양 속담처럼 그들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어항과 어촌을 둘러보면서 저마다 느꼈을 그 생각이 우리나라 어항산업의 발전에 어떤 식으로 녹아내렸을지 구체적으로 계량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지대했다고 믿는다.

세 번째로 어촌·어항 관련 각종 문헌정비는 개인적으로 협회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쩌면 사장되었을지도 모를 우리나라의 어항역사

를 편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차적으로 실시해 발간한 당시 제1·3종 어항 항공사진 촬영이나 어항화보 제작 등은 어떤 특별한 조직을 만들기 전에는 정부로서도 손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협회가 이 분야에 일찍 눈을 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항사의 집대성이란 측면에서도 정말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988년 첫 발간이후 6차례에 걸쳐 발간된 '한국의 어항' 및 '한국어항사' '문화어촌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외에 각종 기술관련 연구도서 발간 등은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한군데로 모아놓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가장 소중한 자료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

○○○ 2. 현재 - 머나먼 정체성 확립의 길

1987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어항협회는 어항법 개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993년 개정된 어항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 등을 통하여 비로소 협회가 법적 설립 근거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4년 2월 협회는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서의 전환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다. 이로 인하여 협회가 일종의 정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특수법인 전환으로 협회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잃었다. 특히 이 시기는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편입되는 수산청 조직의 말기와 겹쳐짐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후원자가 되어야 할 감독관청인 수산청과 상반되는 견해로 인하여 협회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어쨌든 협회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협회의 사업영역이 획기적으로 넓어졌다는 점이다. 정부 위탁업무를 비롯해 각종 용역사업 등을 수주하게 됨으로써 기구나 조직 등 협회의 모든 사업영역이 창



립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말 그대로 어항기술전문단체로서의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반면 잃은 것이 있다면 협회의 자존심이다. 제도권에 소속된 산하단체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협회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운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마도 당초 한국어항협회를 창립할 때의 구상은 이렇지가 않았을 것이다. 롤 모델(Role Model)인 일본의 전국어항협회처럼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전국적인 자생 민간 조직을 만들어 정부업무의 과감한 이양을 받고 이를 통해 어항업무의 세분화, 전문화, 고도화를 이룩하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 이런 혁명적인 발상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언급생심에 불과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특수법인 전환으로 인하여 창립 당시의 충성스러운 회원(특히 기업 회원)을 잃은 것이 협회 발전의 가장 뼈아픈 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 예로 한때 의기투합하여 모든 계약을 입찰계약으로 바꾸려는 정부 방침에 10~20년간 이어지는 어항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또 이를 관철시켰던 어항산업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물론 기업이란 것이 이윤추구가 최우선의 존재가치이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어업인과 어항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최소한의 명분과 사명감마저 퇴색돼 버린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모든 공사가 입찰제도로 전환되었으며, 협회 회원이라고 해서 어항공사를 수주하는데 달리 유리한 측면도 사라진 지금 협회와 회원들 사이를 이어줄 끈끈한 유대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특수법인 전환을 통하여 협회가 사업영역을 다양화 하고 크게 확장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어항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 내지는 후원자들의 동력을 상실한 것은 우리나라 어항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를 놓친 것만 같아 두고두고 아쉽기만 하다.

이제 당장 협회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협회의 정체성이다. 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며,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등등 가장 원론적인 물음에 답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현재 처한 협회의 상황도 그리 썩 낙관적이지 못하다. 과거 해양수산부의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면서 업무의 영역과 성격이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원래 해양수산부라는 발상 역시 어항과 항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또다시 세분화되고 나니 과연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원론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이고 확실한 것은 이런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어촌·어항·어장과 관련한 수산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협회의 중점사업으로 선별 취사선택할 것인가 하는 현명한 판단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다고 본다.

협회가 이것도 중요하니 해야 되고, 저것도 중요하니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특수한 기술력을 갖춘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매기고 하자 는 것이다. 협회가 제대로 튼튼한 골격을 갖추고 난 뒤에 해도 될 사업들이 있다면 지금 과감히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3. 미래 - 어항·어장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최대 화두는 누가 뭐래도 단연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비단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전 세계의 중요한 산업적 흐름이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패는 생각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도 필요하지만 '바다'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과 바로 그 바다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무궁무진한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협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해준다.

누가 뭐래도 그동안 협회는 바다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해 왔다. 그렇게 축적한 노하우를 이제야말로 과감히 펼쳐 보일 때가 됐다. 바로 여기에 협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여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협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구에 붙어 닥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적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좀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협회의 조직이라든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정부조직과의 법적, 제도적 현실까지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토대로 협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현실적으로 한번 찾아본다면 역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어항과 어장분야로 좁혀진다. 이미 검증된 어항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업영역은 이제 협회에 필적 할만한 단체는 없다고 단언한다. 또한 수산업의 주체세력인 어업인들의 텃밭인 어장을 훌륭하게 가꾸기 위해선 어항과 연계한 해양환경정화사업 등도 꼭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협회가 해왔고 협회가 가장 잘 해나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바로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협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협회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닐 것이고, 업무 영역을 놓고 다른 여러 조직이나 단체와 부딪치는 일도 있을 것이며, 생각지도 않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협회의 존립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이란 대의적인 관점과 뜨거운 애정, 그리고



바다의 주체세력인 어업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와 사명감, 진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머잖아 '저탄소 녹색성장'의 바람은 틀림없이 바다 쪽으로 불어올 것이다. 만약 그 속도가 더디다면 어떤 의미로 앞으로 협회의 사업과 연계해서 그 바람을 몰고 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그때에 대비해서라도 확고한 신념과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전문성을 두루 갖춘 안목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두는 지혜로운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이다.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쓰던 중이던 지난 6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날 함께 발표된 92개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이 상위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내로라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단지 24개 기관만이 이 등급을 받았고, 그 안에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작지만 강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증명해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장 이하 전 직원들이 푹푹 뭉쳐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이 발표가 있기 바로 전날인 6월18일 '어항과 어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계방안'이란 주제로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12회 한·일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자리에서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전체 진행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감동을 받은 터였기 때문이다.

이건 절대로 공치사가 아니다. 우선 모든 진행이 물 흐르듯 매끄러웠고, 참석한 한·일 관계자가 주제를 놓고 벌이는 진지한 발표와 토론, 어항과 어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이 회의 시간 내내 그대로 배나왔기 때문이다. 거기서 협회의 가능성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 화려한 수사를 동원한 '겉멋내기'의 수명은 그리 길지 못하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엔 진정성과 신뢰감이 느껴진다.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느낌을 받았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창립 22주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동안 바람도 많이 파고 산하단체로서의 한계를 느낀 적도 있었을 것이며, 적잖은 좌절도 겪었을 것이다. 이를 우여곡절이라고 하던가. 그렇다. 강한 쇠뿔이 되기 위해서는 망치를 받아야 한다. 지난 세월의 수고와 노력도 그런 쇠뿔이 될 것이다.

이제는 남은 과제는 과거를 돌아보는 단계급그레이트볼 협회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바다가 있는 어항이 있으며, 어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협회의 열정과 역할에 박수를 쳐주는 어업인이 있다. 이 시간의 고통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역동적인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를 확신한다. 